

# 공정위, 광주 '교복 입찰 담합 의혹' 본격 조사 착수

### 다음달 6일 심의...이 대통령 지적한 '등골 브레이크' 교복값 잡기 나서 교육부도 전국 학교 전수조사·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학부모들 "환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의혹(광주일보 2월 24일 6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도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5700여개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고, 3월까지 입찰 담합 등 신학기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에 대해 "등골 브레이크"라는 지적을 한 데 이어 관계부처가 총동원 돼 '교복 값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다음달 6일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입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실행한 사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 136개 중·고교 교복 구매 사업에서 조직적인 담합이 적발돼 교복 업자 2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공정위는 전국 4개 교복 제조사와 40개 안팎의 대리점에 대한 입찰 담합 등 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다.

광주 지역의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은 최근에도 제기된 바 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이 90%를 넘긴 학교는 12곳에 달했다.

최근 3개월간 전남 지역 중·고교 38곳의 교복 입찰 결과에서도 투찰률이 95% 미만인 학교는 5곳에 불과했고, 9개 학교는 99%를 웃돌았다. 대부분의 학교 입찰에 2~3개, 많게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수백 원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1000~2000원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상한가 이하 최저가 낙찰 구조임에도 낙찰 금액이 상한가에 웃돌아 형성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중·고등학교 5700여곳

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 계획이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비싼 교복값의 원인이나 실용성이 떨어진다든 지적을 받은 '정장형 교복'에 대해서도 '폐지 권고'키로 했다.

학생들이 정장형 교복을 잘 입지 않고 생활복, 체육복을 많이 입는다는 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복 정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장형 교복을 사는 데 소진된다는 점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생활복이나 체육복 구매에 교복 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사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지나 셔츠는 대체품을 허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지역 학부모들은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교복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보니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30만여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아도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학부모 김옥희(여·50·광주시 광산구)씨는 "작년에 아이 교복을 맞췄는데 교복비만 70만원을 들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너무 좋지만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서 셔츠 한 장만 추가해도 7~8만원씩 늘어난다"며 "담합을 잡든,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든 학생도 학부모도 부담없이 사 입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딸의 교복을 사면서 60여 만원을 썼다는 정은희(여·38·광주시 남구)씨도 "성장이다 보니 작아지면 또 맞춰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된다. 자켓, 셔츠, 넥타이, 바지, 치마 등으로 구성된 정장보다 생활복을 입으면 활동하기도 편하고 비용 부담도 적을 것"이라며 "생활복만 입게 하거나 필수 구매 품목은 무상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시민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는 "국민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심사하기를 바란다"며 "성장이 아이들의 신체적 활동에 편안함을 주는 생활복형 교복으로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나서서 교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산불 진화 훈련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26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서창동 학산사에서 서구청 산림재난대응단, 서부소방 관계자들이 산불진화 모의 훈련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지난해 통보 전남교육청 등 학생 모집·비자 신청 강행했다”

### 법무부, 전남미래교육고 관련 반박문

법무부가 전남미래교육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광주일보 2월 26일 6면)와 관련, "사전 경고했다"는 취지의 반박문을 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미 작년 부터 정부가 사증(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전남도교육청 등 일부 지방 교육청이 미성년 외국인 학생 모집과 비자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중단 사실을 오래 전 통보받았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의 행태를 문제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역 취업과 정주를 연계하는 미성년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

교육계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쳤다"며 "논의 결과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해당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한다고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학생비자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교육나눔' 목적이 확인되는 일부 예외 학교에게 비자 발급을 승인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불승인을 최종 통보했다"며 "현재 고교 이하 미성년 학생비자(D-4-3)는 자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때 불법 브로커 개입 우려, 외국인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

해 등 인권침해 발생 우려, 인신매매로 비취질 우려 등 문제가 있어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 강진군 옛 성요셉성문 학교 부지에 전남미래교육고를 개교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을 할 예정이었다. 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개국에서 4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지난 23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를 최종 통보하면서 전원 입국이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법무부에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중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전남미래교육고에서 이주배경 학생 6명과 고려인 후손 4명 등 총 10명의 입학생을 중심으로 2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제주항공 사고기 잔해 재조사 중 유해 추가 발견

### 유가족들 "사조위 초기 수습 제대로 했다" 의문 제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기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인골(人骨)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

2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기 잔해를 정리하던 중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을 발견했다.

발견된 유해는 길이 25cm의 뺏조각으로, 사고기 잔해와 유류품 등을 보관하던 톤백(대대자루) 내에 담겨 있었다. 톤백은 방수포 등으로 덮인 채 야

외에서 보관돼 왔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포크레인 등 장비로 이용해 잔해를 수습하다 기체 부품 사이에 끼어 있던 유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채취한 179명의 DNA 자료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사고 후 1년이 넘게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은 유해가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초기 수습과

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 김성철(54)씨는 "1년 이상 노지에 방치돼 있던 잔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날 하루에만 신발, 옷, 가방 등 유류품 154점이 추가로 분류됐다"며 "내 가족의 마지막 흔적일 수도 있는 유류품과 인골이 왜 장기간 방치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발견된 유해와 유류품 앞에서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무너지고 있다"며 "참사 당시 생명에 대한 예우보다 '빠른 수습'과 '상황 종료'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퇴직 교사들 근무 날짜 조작 1억 빼돌린 공무직 직원 적발

완도에서 퇴직 교사들의 근무 날짜를 조작해 1억여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빼돌린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완도경찰은 군청에서 사회복지종사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 관내 읍·면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채용·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교사 퇴사 날짜를 조작해 1억 800만원 상당의 사회복지 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동센터 교사들의 퇴사와 채용 등 교체 과정에서 시기상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리고, 퇴사자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 아동복지 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문상 지급 계좌 명의는 퇴사한 교사의 이름으로 유지한 채 실제 지급시스템에서 본인 가족 계좌를 등록해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서광주농협 신의빌 2026-7호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 정보, 생활 서비스를 만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에 선택한 NH로뱅크!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쿼리 바로 확인까지 쿼리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 기본예금(국외)의 이율 7% (0.7% NH로뱅크 적용)
- 카드 적립금 2% (2% 적립 / 2% 적립)
- 국세청 리얼타임 무리이율 서비스(월별 연회 제공)
- 농협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결제(결제) 이체수수료 통합 월 1회 면제

**일 생애 최대 혜택은 전 생애 최대 혜택**  
이거 하나로 든든하게, 100%까지 배신 보행

- 20~80세, 유병자도 간편 가입 가능
- 100%까지 비갱신형(해당금액 가입시)
- 갱신형 담보 제외
- 첫날 단돈 1만원 및 첫날 단돈 1000원 보험 가입자 1% 할인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 환전 |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 농지매매자금 대출연도 최대 80%
-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풍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춘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나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양동센터로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농협 기관 서광주농협